



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

1. 세계 경제

세계경제는 각국이 세계적인 공조 속에 재정 및 통화 확장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펼쳐 09년 하반기부터 호전되고 있으며, 2010년에도 대부분 국가의 정부재정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 및 투자에 의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재정정책 효과에 의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성장동력이 취약하고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지속, 설비투자 및 신규고용억제로 가계소득 및 고용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소비마인드 회복이 더더 2% 중반에서 3% 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구분	삼성경제연구소 (09.11.26)		LG 경제연구원 (09.9.2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09.11.16)		IMF (09.10.1)		Global Insight (09.10)	
	09년	10년	09년	10년	09년	10년	09년	10년	09년	10년
세계	△1.9	2.6	△1.4	3.0	-	-	△1.1	3.1	△2.1	2.6
미국	△2.6	2.1	△2.8	1.8	△2.5	2.0	△2.7	1.5	△2.5	2.1
유로지역	△4.0	1.0	△4.7	0.5	△3.9	0.8	△4.2	0.3	△4.0	0.9
일본	△5.3	1.1	△5.5	1.6	△5.8	1.5	△5.4	1.7	△5.8	1.1
중국	8.3	9.8	8.0	8.2	8.2	8.9	8.5	9.0	8.1	10.1

※ 주()는 전망 시점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어, 금년 2/4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의 급락세가 진정되고 하반기 고용감소세도 완화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은 느린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1% 중반에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U지역도 금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미약하나마 개인소비 증가세로 연결되었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확대가 GDP성장률 하락폭을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에도 수출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겠으나 실업 증가와 역자산효과 등의 영향으로 내수회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1% 이내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對아시아 수출회복에 따른 순수출 증가와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힘입어 09년 2/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플러스 전환에 힘입어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 회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소비도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회복력이 미약하여 1%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경제는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내수 및 산업생산이 확대되는 등 09년 1/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고, 2010년에는 경기부양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8% 초반에서 10%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그 밖의 신흥경제국들은 생산과 수출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내수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빠르게 경기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둔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 경제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년말부터 09년 1/4분기까지 급락세를 보였으나 강력한 경기부양책 및 감세 등의 효과로 2/4분기부터 내구재의 소비 호조를 보였고, 수출측면에서도 높은 對중수출 의존도와 고환율에 따른 점유율 상승효과 등에 힘입어 2/4분기부터 견고한 상승세를 시현했다. 이로 인해 0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에도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와 내구재 등에 대한 대기수요로 상승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원화강세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경기 상승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 및 국가부채 확대 부담으로 정부의 부양규모가 축

소되면서 민간부문 수요를 약화시켜 3% 후반에서 5%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기관명	09년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09.11.26)	0.2	4.3
LG 경제연구원(09.9.23)	△0.6	4.2
하나금융경영연구소(09.11.16)	0.1	3.9
대신경제연구소(09.11.17)	△0.1	4.6
한국 개발 연구원(09.12.1)	0.2	5.5

※ 주 : ()는 전망 시점

민간소비는 08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전년동분기 대비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 자산가격 상승, 정부의 자동차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힘입어 3/4분기 중에 전년동분기 대비 1.6%의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향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고용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임금소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가격 상승도 소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에는 3% 대의 증가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08년 말 이후 불확실성 증대와 비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09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9.5%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급감하였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되지만 투자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1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환율 안정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한 전망이다. 한편, 건설투자는 09년에 민간건설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토목건설 지출 확대로 전년대비 3%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2010년에는 민간건설 부문의 완만한 회복이 기대되나 정부의 공공건설 부문의 기여도 약화로 전년대비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이 08년 하반기보다 낮아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2010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금년과 비슷한 3%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시장금리는 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수요 증가와 정책당국이 유동성 환수를 위해 양적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상황은 금년 연초부터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나 정부와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 등이 주효하면서 현재의 고용 부진 수준은 연초의 우려보다는 양호해졌다. 2010년에는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자리 창출폭은 09년 중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조정을 억제, 현 인력규모가 경기상승기에 대비한 여유자원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으므로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개도국 및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선박 수출 호조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수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이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강세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3. 환율(원/달러) 및 국제유가

금년 환율은 상반기에 1,2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된 양상을 보였으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지속되어 9월 1,100원대로 진입후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화 절상률이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2010년에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되고,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 및 초저금리, 기축통화 대체논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도 달러화의 유입 지속, 원화의 저평가 국면, 원화 환율의 쓸림현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여 2010년 평균 1,100원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 2010년 환율 전망 〉

(원/달러)

기관명	09년	10년		평균
		상반기	하반기	
삼성경제연구소(09.11.26)	1,276	1,130	1,070	1,100
하나금융경영연구소(09.11.16)	1,280	1,150	1,120	1,135
한국금융연구원(09.10.28)	1,275	1,130	1,110	1,120
LG 경제연구원(09.09.23)	1,280	-	-	1,140

※ 주 : ()는 전망 시점

09년 국제유가는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소비 확대 기대,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OPEC 감산정책 지속 등의 수급과 금융 요인으로 하반기에 상승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석유수요 증대, 투기자금 유입 등이 유가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및 인도의 수요가 견조하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 및 유럽, OECD 주요국 석유 소비의 개선 속도 지연과 투기자금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0년 국제유가 전망 〉

(달러/배럴)

주요기관	기준유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균
CGES(09.10.19)	Brent	71.4	72.3	-	-	68.7
CERA(09.10.8)	WTI	65.0	64.0	67.0	70.0	66.5
EIA(09.10.6)	WTI	71.0	71.6	72.6	74.3	72.4
PIRA(09.10.29)	WTI	80.8	82.6	84.1	87.8	83.9

※ 주 : 1.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RA: 미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 EIA: 미 에너지 정보청, PIRA: 석유산업연구소
2 ()는 전망시점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09.11.26)
- LG 경제연구원 : 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 (09.9.23)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0년 경제금융전망 (09.11.16)
- 대신경제연구소 : 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 (09.11.17)
- 한국경제연구소 : 2009~10년 국내경제 전망 (09.11.24)
- 한국개발연구원 : 우리경제전망과 대응방안 (09.12.1)

